

4. 마을의 특징

1) 광비원(廣比院)

중앙관청(中央官廳)과 울진 간의 동서통로(東西通路)였던 광비(廣比)에 고려시대부터 관원(官員)의 국영(國營) 광비원(廣比院)이 있었다.

2) 성황당(城隍堂)

내광비(內廣比), 외광비(外廣比)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어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시고 매년 제사를 올려 동민의 행운(幸運)을 기원하고 있다.

제2절 광회2리(廣回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이 마을은 동서(東西)로 길게 형성된 지역으로 동쪽은 통고산(通古山) 너머에 쌍전1리와 왕피1리가 있고, 울진군과 영양군, 봉화군의 3개 군(郡)이 접해 있는 곳이며, 동서(東西) 분수령(分水嶺)인 답운재(踏雲峠) 운봉(雲峯)이 배경산(背景山)으로 뻗어있다. 그리고 서쪽은 광회1리, 남쪽은 낙동강 상류인 옥방천(玉房川)을 사이에 두고 봉화군과 길게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진조산(眞鳥山) 일대로 광회1리와 접해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거응동[巨應洞 일명 : 옥방(玉房)]

1560년경에 우씨(禹氏)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개척(開拓)하였다 한다. 지관(地官)이 이곳을 지나다가 말하기를, 지형(地形)이 금부(金釜)와 같이 생겼으므로 앞으로 크게 번창(繁昌)할 것이라 하여 지명(地名)을 거응동(巨應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냇물을 사이에 두고 봉화군 소천면(小川面) 분천5리(汾川五里)와 한 지역을 이루고 있다. 광복(光復) 전에는 일본인(日本人)이 중석광(重石鑛)을 개발하였으나, 광복 후부터 본격적으로 채광(採鑛)되었다. 미군정(美軍政) 당시 미군(美軍) 1개 대대(一個大隊)가 이 마을에 주둔(駐屯)하였고, 미군정(美軍政)에서 직접 관여하여 미군(美軍)이 2차 세계대전에서 소모한 중석(重石)을 충당(充當)하기 위하여 미 본국(美本國)으로 반출하였다. 미군정(美軍政) 이후에는 민영광업

(民營鑛業)으로 되어 월(月) 5~6t의 광물이 생산되었으며, 국내에서 세 번째 규모가 큰 민영 광산이다. 차츰 광산(鑛山)이 활기를 띠면서 이곳 주민의 90% 이상이 광부(鑛夫)였고 매화면 소재지보다 더 많은 인구(人口)로 거응동(玉房) 광산촌(鑛山村)을 이루었다. 이때 옥방중학교(玉房中學校)가 설립되었으며, 마을의 입구 산정에 있던 광동초등학교(廣東初等學校)는 1971년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이건, 신축하고 옥방초등학교(玉房初等學校)로 개명하였다. 당시 재학생(在學生)은 400명이었다. 광산(鑛山)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1992년에는 삼근초등학교(三斤初等學校) 분교(分校)로 전환된 후 최근 폐교되었다.

2) 남회룡(南回龍)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일맥(一脈)이 동남(東南)으로 회룡(回龍)하여 이루어진 곳이라 하여 남회룡이라 부르며, 냇물[낙동강 상류]을 사이에 두고 내(川) 건너에는 봉화군 남회룡(南回龍)이고, 내(川) 북쪽은 울진군 남회룡(南回龍)이라 한다.

3) 홍이동(紅衣洞)

고려 공민왕(恭愍王) 10년에 홍건적(紅巾賊)의 남침(南侵)으로 이곳까지 패주(敗走)할 당시 홍이(紅衣:軍服)가 벗겨진 곳이라 하여 홍이동(紅衣洞)이라 부른다고 전하고 있다.

4) 땃골(竹谷)

예로부터 대나무가 많이 있다 하여 땃골이라 부른다.

5) 옥방터(玉房터)

옛날에 지관(地官)이 이곳을 둘러보고 보물(寶物)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대(地帶)라 하여 옥방(玉房)이라 불렀다 하며, 일제강점기에 일인(日人)이 중석광(重石鑛)을 개발(開發)하였다. 옥방터에는 광산갱도(鑛山坑道)의 입구가 있고, 제련장(製鍊場)이 있는 곳이다. 폐광(廢鑛)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61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이씨(李氏), 박씨(朴氏), 담양 전씨(田氏)들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구정이골(九鼎谷)

솔 아홉 개를 걸어놓고 밥을 짓는 산세(山勢)라 하여 구정이골(九鼎谷)이라 부른다.

2) 금산터, 금상이터(金象谷)

답운재(踏雲峙)에서 남쪽 1km 거리에 있는 이곳에 금은(金銀)이 많이 날 것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답운재(踏雲峙)

해발(海拔) 600m인 이 고개(嶺)는 36번국도가 동서(東西)로 태백산맥(太白山脈)을 넘는 분수령(分水嶺)이다. 동해로 흘러드는 냇물은 불영사계곡(佛影寺溪谷)의 상류(上流)가 되고, 서쪽으로 흐르는 냇물은 낙동강 상류가 된다. 이 고개에는 늘 안개가 끼어서 구름을 밟고 넘는 고개라 하여 답운재(踏雲峙)라 부른다.

4) 성황당(城隍堂)

거응동(巨應洞)과 남회룡(南回龍)에 성황당이 있어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다.

5) 순직경찰관 위령비(殉職警察官 慰靈碑)

한국전쟁 중 수복(收復) 당시에 이곳에서 북한 패잔병(敗殘兵)과 교전(交戰) 하다가 경찰관 6명이 그들에게 생포(生捕)되어 순직(殉職)하였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경우회 [회장 : 임성률(林成律)]의 노력으로 1988년 6월 25일에 답운재(踏雲峙)에 위령비를 세우고 제막(除幕)하였다.

제3절 삼근1리(三斤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군청 소재지에서 36번 국도(國道)를 따라 서쪽으로 24km 거리에 있으며, 금강송면 소재지 마을로 불영계곡(佛影溪谷)의 위쪽에 있는 광천계곡(光川溪谷)이 마을 앞으로 달리고 있다. 마을의 서쪽은 통고산(通古山), 남쪽은 천축산(天竺山), 북쪽은 세덕산(細山)과 접하며